



## 주40시간제 따른 병원정상화 대책

-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부쳐 -

글·유 태 전 |  
대한병원협회 회장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은 모든 산업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3교대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간호, 시설파트 등 전체 근무인력의 80% 이상 차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의 특성상 주5일제 채택은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바**야흐로 우리 병원계도 주5일제 시대에 들어섰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병원산업)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근로시간 단축제'가 병원에서는 제조업과 달리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은 모든 산업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3교대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간호, 시설파트 등 전체 근무인력의 80% 이상 차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의 특성상 주5일제 채택은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당장 병원은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추가 인력투입 등 비용증가와 진료시간 단축에 의한 진료수익 감소라는 이중고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병원은 전체 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본집약

적인 산업인데다가 의료 이외의 분야에서 수익을 보충할 수 없고(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수익이 있기는 하나) 구조적으로 오로지 수가에만 의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쇄신책만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병원계는 정부의 주40시간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先수가(수익)보전 後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일부에선 주5일제에 따른 비용상승분은 경영혁신으로 흡수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병원산업의 특성상 그같은 노력도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직원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병원 차원에서 한정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주5일제와 관련해 병원 내부적으로는 토요일 진료시간의 일부를 평일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 평일 진료 역량(기능) 강화와 주말(외래)진료 프로그램 개발, 응급의료센터 진료능력 확대 및 기능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시차제 근로제, 탄력적 근로 확대 시행을 통한 연장근로 최소화 등 주5일근무에 따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 및 업무방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당국도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국민 건강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력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 정책을 펼 것을 주문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통을 병원만이 감내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방치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주5일제에 따른 병원의 수익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가 인상, 야간가산 적용시간대 조정 및 심야가산을 적용,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 수가 및 수가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병원정상화 방안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병원산업 안정이야말로 노사평화의 선결조건이자 선진의료복지 구현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같이 곱씹어 볼 때이다.  2004